

 인재위원회 2026.4.30.(목)	보 도 자 료 담당 : 인재위원회 연락처: (02)6788-6256
--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진 김영빈 변호사 영입

- 민생 중심 법무 행정을 실현한 정책 전문가.. “공주·부여·청양의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당대표)는 5월 8일(금) 13시 15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영빈 변호사(전 검사)를 제4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영빈 변호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공주에서 졸업했으며,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재학 중이던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창원·대전·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등을 거쳐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법무행정가’이자 ‘정책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특히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검사로 근무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여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졌으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범죄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검찰시민위원회의 활성화 등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실현해 내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정책 기획·행정 역량까지 두루 갖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영입식에서 김영빈 변호사는 “정책은 서류가 아닌 ‘현장’에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수많은 민생의 최전선을 누벼왔다”며, “서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낡은 사회 구조를 허물기 위해서는,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흠어진 목소리를 하나의 제도로 묶어내는 보다 강력한 동력이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 바쳐, 저를 키워준 고향 ‘공주·부여·청양’의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청래 인재위원장은 김 변호사에 대해 “보통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나쁜 짓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맞섰던 ‘정의의 사도’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이제는 공주·부여·청양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나서주셔서 정말 기쁘다”며 환영의 뜻과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영입식에는 정청래 인재위원장(당대표)을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영진 인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홍배 인재위원회 간사,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한민수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김영빈 변호사를 환영하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재영입을 계기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김영빈 프로필

<붙임 2> 김영빈 인재 소개

<붙임 3> 김영빈 발표문

□ 일반사항

- 1980년 출생(46세)
- 공주 교동초등학교 졸업(22회)
- 공주 공주중학교 졸업(44회)
- 공주 공주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40회)
- 고려대 법학과 졸업(99학번)



□ 주요 경력

-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8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08 | 공익법무관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2011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특수 및 환경 범죄 수사 담당)
- 2013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특수 및 환경 범죄 수사 담당)
- 2015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안부, 기획 업무)
- 201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범죄수익환수부)
- 2019 | 검찰 과거사 위원회 특별수사단 검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 2019 | 법무부 검사 (장관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
 - ※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
- 2021 |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2026 | (현재) 법무법인 승본 대표변호사

도랑에서 가재 잡던 소년, 공주가 키운 '충남의 아들'이 되어 돌아오다
공주의 흙을 밟고, 금강의 물줄기를 보며 자라난 김영빈은 뱃속까지 '충남 사람'입니다. 유년 시절, 동네 도랑에서 가재를 잡고 들판을 맨발로 뛰어놀며 이 땅의 넉넉한 인심과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몸소 배웠습니다. 유년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그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보살핌 속에서 성실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시절 함께 고민하고 꿈을 나누었던 초·중·고교의 친구들은 지금도 그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충남의 정직한 정서와 은근하면서도 강인한 성품을 닮은 김영빈은,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고향의 발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역 없는 정의'를 세우고 현장의 아픔을 체감한, 행동하는 법률 전문가
김영빈 인재는 법조인으로서 가장 먼저 '성역 없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특별수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최전선에 서서, 권력형 비리 앞에 굴하지 않는 강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사법 기관의 과오를 통렬히 되짚으며 조직 내부의 성찰과 변화를 이끄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의로움은 일선 민생 현장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윤을 위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청정한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 사범들을 엄단하고, 국민의 혈세인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는 부패 범죄를 날카롭게 적발해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그가 마주한 것은 단지 '범죄'만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법 집행의 과정에서 그는 벼랑 끝에 몰려 법의 경계선에 서게 된 서민들의 고단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의 깊은 고뇌는,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빈곤과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만

컴이나, 국민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삶을 지탱해 주는 '근본적인 민생 정책'이 중요하다는 그의 확신은 이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 '민생 중심 법무 행정'을 실현한 정책 전문가 현장에서 다져진 뼈저린 고민은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김영빈 인재는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등 핵심 부서에 발탁되어,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며 몸소 느꼈던 조직 내의 부조리함을 타파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근간이 되는 법안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을 향하는 사법 시스템의 청사진을 직접 그려낸 '개혁의 실무 주역'입니다.

동시에 그의 시선은 늘 사회적 약자들의 고단한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의 문턱이 높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임대료 걱정과 밤잠을 설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체감형 정책들을 기획했습니다. 권위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의 일상을 보듬는 '따뜻한 법무 행정'의 실현이었습니다.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마주한 관료의 한계,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정치'를 결단하다

정책은 서류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영빈 인재의 변함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장관과 함께 수많은 민생 현장을 직접 누볐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장부터, 벼랑 끝에 선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시설, 재범 우려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 현장,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현장까지 가장 절박하고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현장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직자로서 마주하는 한계 역시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주어진 법률과 제도를 집행하는 관료의 수동적인 역할만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팍팍해지는 서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낡은 사회 구조를 허물어내는 데 분명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짓는 국민들을 지켜보며, 그는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자체를 넓히고 국민의 삶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체감했던 한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그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하는 정치인'의 길로 나서게 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하는 유능한 실천가

정치인 김영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장의 절박함'을 '국가의 정책'으로 번역해내는 독보적인 실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서민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실제 법안과 제도로 구현해 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정책 설계 경험은 있으나 탁상행정에서 머물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길을 걷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김영빈 인제는 이 두 가지 궤적을 모두 관통해 온 드문 융합형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과 방역·보호 시설을 직접 발로 뛰며 누구보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감의 리더십'을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등에서 국정 핵심 과제를 다루며, 그 현장의 요구를 법령 제정, 예산 확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살아 숨 쉬는 '실제 정책'으로 완성해내는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공주·부여·청양의 발전을 가로막는 해묵은 과제들과 도량물처럼 세밀한 지역민의 고충들 역시, 이제 그의 손을 거치면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내는지' 아는 준비된 일꾼. 현장의 땀방울이 입법의 결실로 이어지게 만드는 유능함이야말로, 김영빈이 우리 지역의 내일을 책임질 대체 불가능한 책임자인 이유입니다.

고향의 흙에서 배운 초심, 공주·부여·청양 대전환을 이끌 '실력 있는 세대교체'

공주의 작은 도랑에서 가재를 잡으며 충남의 흙냄새를 들이마셨던 소년이, 이제 국가 정책이라는 큰 도면을 다루는 실력자가 되어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는 '정쟁'에서 '실용'으로, '진영'에서 '능력'으로 그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본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김영빈 인제는 사법과 행정, 그리고 민간 기업이라는 3대 핵심 영역을 두루 섭렵하며 원칙과 현장, 산업의 흐름까지 완벽히 체득한 보기 드문 '완성형 인재'입니다. 치열한 중앙 무대에서 버려낸 이 압도적인 실력과 젊은 감각은 이제 오직 '공주·부여·청양'의 도약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박수현 도지사 후보와의 시너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박수현이 설계하는 더 큰 충남'의 큰 그림 속에, '김영빈이 완성하는 공주·부여·청양'의 세밀한 채색을 더하여 지역의 운명을 바꿀 완벽한 '찰떡궁합'을 선보일 것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고향의 은혜에 온몸으로 보답하겠다는 뜨거운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현실의 변화로 증명해 낼 압도적인 실력. "실력 있는 세대교체, 준비된 김영빈"이 젊고 새로운 시선으로 공주·부여·청양 대전환의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벅찬 마음입니다. 부족한 저의 가능성을 믿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 조승래 사무총장님, 김영진 인재영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전국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충남 공주의 흙을 밟고 자랐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그곳에서 마치며, 땀속까지 '충남 사람'의 정서를 안고 성장했습니다. 동네 도랑에서 가재를 잡고 들판을 맨발로 뛰어놀던 시절,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웃들의 넉넉한 품은 저를 반듯하게 키워준 자양분이었습니다. 그 고향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믿었고, 그 굳은 마음 하나로 사법시험을 거쳐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수사 현장에서 마주한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공의 이익을 쪼먹는 거악(巨惡)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싸웠습니다. 이윤을 앞세워 국민의 생명줄인 자연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환경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했고,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갹아먹는 보조금 편취 사범들을 날카롭게 도려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특별수사단에서는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며 성역 없는 정의를 세우고자 했고, 과거 사법기관의 과오를 뼈아프게 직시하며 조직의 통렬한 혁신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법전을 들고 단호하게 원칙을 집행하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은 늘 무거운 부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 기록의 행간에는, 빈곤과 사회적 모순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법의

경계선에 서게 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은 등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뼈저리게 자문했습니다. 과연 사후적인 단죄만으로 이분들의 삶에 단 하루의 평안이라도 찾아줄 수 있는가. 범죄를 처벌하는 엄정함만큼이나, 애초에 국민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근본적인 민생의 방패'가 우리 사회엔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그 절박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 법무부의 핵심 부서로 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등에서 근무하며, 저는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향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근간이 되는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과 인권보호 제도의 전면 개편 등, 민주적 사법 통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실무적 역량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저의 시선은 늘 삶의 벼랑 끝에 선 약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임대료 걱정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내일 당장 쫓겨날지 몰라 불안에 떠는 서민들의 주거와 영업권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정책들을 기획했습니다. 책상 위의 차가운 법조문이 아니라, 국민의 얼어붙은 삶을 녹이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정책은 서류가 아닌 '현장'에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수많은 민생의 최전선을 누볐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사투를 벌이던 방역 현장과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시설을 넘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시장의 소상공인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이웃들,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장애인들의 팍팍한 삶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서민과 약자들의 절박한 눈물은 제 가슴에 깊은 화인(火印)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깊숙이 들어갈수록, 저는 한 명의 공직자로서 뛰어넘기 힘든 '관료의 한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기획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술한 갈등과 구조적 모순을 돌파하기에는 관료에게 쥐어진 수동적인 권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낡은 사회 구조를 허물기 위해서는,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의 제도로 묶어내는 보다 강력한 동력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이후 실물 경제 현장과 민간 기업을 거치며 그 해답과 실력을 단단히 다졌고, 이제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 내는 '실천하는 일꾼'이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당 지도부,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 바쳐, 저를 키워준 고향 '공주·부여·청양'의 더 큰 도약을 이루려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활력은 잃어가고,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이를 조율해 낼 치밀한 정책적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쟁에서 '실용'으로, 진영이 아닌 '능력'으로, 구호가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실사구시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지금 필요한 사람은 중앙과 끈질기게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저 김영빈은 사법과 행정, 그리고 민간 실물 경제라는 3대 영역을 치열하게 넘나들며 원칙을 세우고, 현장을 체감하고, 산업의 흐름을 익혀 온 융합형 인재라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 공주·부여·청양의 시계는 결코 멈춰설 수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값진 토대를 닦아오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배 정치인들의 훌륭한 자산을 단단하
게 이어받고, 그 위에 역동적인 속도감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실력 있는
세대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의 웅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 박수현 도지사
후보님과과의 연대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박수현 후보
님이 그리시는 더 큰 충남의 도면 위에, 저 김영빈이 공주·부여·청양의 꼼꼼한
채색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정책적 시너지로, 중앙의 단단한
물줄기를 고향으로 막힘없이 끌어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랑에서 가재를 잡던 소년 김영빈이, 이제 지역의 내일을 앞당길 가장 젊고
유능한 도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를 키워준 고향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고
저를 안아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믿음에 제 온몸을 바쳐 보답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세대교체, 준비된 김영빈이 새로운 40대의 시선으로 공주·부여·청양의
더 큰 도약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